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9년 5월 1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월 16일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5. 16.(금)	담당부서	구주통상과 산업기술개발과
담당과장	송주호 과장(044-203-5660) 이재식 과장(044-203-4500)	담 당 자	김수진 사무관(044-203-5661) 전소원 사무관(044-203-4535)

정승일 차관, 영국과 미래형 신산업 협력 강화

- 英기업에너지부 국무차관 및 사무차관 연쇄 면담(5.15, 런던) -
- 미래차, 바이오, 시스템반도체 등 분야 공동 R&D 본격 착수 -

□ **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**은 5.15(수) 런던에서 **영국 기업에너지부**의 **앤드류 스티븐슨**(Andrew Stephenson) **국무차관, 알렉스 치솜**(Alex Chisholm) **사무차관**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**양국간 산업·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**을 논의함

□ 먼저, 양측은 양국의 산업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**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**하기 위해 **AI·빅데이터, 시스템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** 등 **미래형 신산업** 분야에서 **긴밀히 협력**하기로 의견을 모음

< 양국간 미래형 신산업 협력 방향 >

분야	협력 방향
AI· 빅데이터	▪(韓) 산업+데이터 결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지능화 추진 중 ▪(英)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활용한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 추진 중 ⇒ 빅데이터 기반 분석 기술 및 빅데이터 표준화 방안 등의 교류 협력 증진
반도체	▪(韓) 메모리 1위 기술력 + 자동차/에너지/5G 등 탄탄한 반도체 국내수요 보유 ▪(英) 시스템반도체 핵심요소인 설계자산(IP) 시장 주도(세계시장 약 45% 점유) ⇒ 양국 강점을 기반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 협력 지속
미래차	▪(韓) '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+ '21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▪(英) '21년 자율주행차 실도로 운행을 목표로 기술개발 등 지원(약 1,500억원) ⇒ 자율주행 기술개발과제의 공동기획 등 추진
바이오	▪(韓) 바이오 세계 26위 + 바이오 벤처기업 창업 증가 및 VC투자 활발 ▪(英) 바이오 세계 7위 + 산·학·연 공동연구가 활발한 바이오 클러스터 보유 ⇒ 공동연구·기술협력 및 한국사절단 訪英 추진('19.11)

○ 이와 관련, 양국은 구체적 기술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**약 400만 파운드 규모**의 **한-영 공동펀딩형 R&D 프로그램**을 **올해 본격 착수**하고, 금년 하반기 서울에서 **국장급 실무협의회**인 **한-영 과학기술혁신 파트너쉽 위원회를 개최**하기로 함

* 한-영 공동펀딩형 R&D 프로그램: (총 재원) 영국 200만 파운드, 한국 30억원,
(지원규모/기간) 과제당 총 5억원 이내, 최대 2년

□ 양국 차관은 **新기후변화에 대응**하고 **청정에너지 확대**를 이끌기 위해 **수소경제, 재생에너지** 등으로 **에너지 협력을 확대**하는 방안을 논의함

* 영국은 '17년 청정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저탄소 기술개발에 25억 파운드 지원 예정

○ 정 차관은 **"양국은 수소산업 육성 여건이 유사**하면서도 **상호 보완적 강점**이 있다"며 수소경제가 친환경 에너지이자 혁신성장 원동력임을 고려할 때 **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 확대와 수전해 기술** 분야에서 **적극적인 협력**을 제안함

* 양국은 높은 인구밀도로 충전소 구축이 유리하여 수소차 보급 확산 등 수소사회로의 전환 용이, 특히 한국은 수소차/연료전지 분야, 영국은 수전해 분야에서 상대적 강점 보유

* 영국은 '12년부터 수소이동성 프로그램(UK H2 Mobility)을 시행해 수소차 보급 확산, 수소 충전소 확충 등을 추진하고 저탄소차 구매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 제공

○ 또, 정 차관은 양국이 **깨끗한 에너지원 확대**를 위해 풍력, 태양광 등 **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**하고 있고 특히, 영국이 해상풍력 강국이므로 **양국 전문기관간 협의체** 또는, **기업간 워크숍 개최**를 **활성화**하는 등 **실질 협력 강화**를 제안함

* 영국 재생에너지 발전량('18년): 111.1TWh, 총 발전량 333.9TWh 대비 33.3%
- 풍력 57.1TWh, 바이오 35.6TWh, 태양광 12.9TWh, 수력 5.5TWh

* 영국은 '18년 기준 육상·해상풍력 21.7GW(48.9%) 설비를 보유했으며 '17.10월 세계 최초로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스코틀랜드에서 상업 운전 개시

□ 양국 차관은 향후 한-영간 산업 및 에너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국장급 협의체* 외에 韓**산업통상자원부-英기업에너지부간 고위급 협의채널** 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함

* 한-영 원자력 산업 대화체(국장급), 한-영 과학기술파트너쉽 위원회(국장급)

□ 한편, 정 차관은 **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**(5.15, 런던)를 갖고 기업들의 **브렉시트 대응 현황을 점검**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함

○ **우리 정부는 양국간 통상관계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한-영 FTA 적기 체결**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브렉시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**기업지원 체계도 강화**하고 있음을 설명함

*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(무역협회·코트라)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, 피해기업 발생시 △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, △무역보험금 신속지급 등 지원 예정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송주호 구주통상과장(☎ 044-203-5660), 이재식 산업기술개발과장(☎ 044-203-450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